고전미 담은 도자 예술 아름다움

한국전통문화전당 두 번째 기획초대전 도예가 김흥준 작가 '백자전' 31일까지 개최

한국 도자기의 전통과 담백함을 보여주는 백자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은 2022년 두 번째 기획초대전으로 도예가 김흥준 작가의 '백자전(展)'을 오는 31일까지 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불의 예술에 심취해 40여년 전통의 기법을 이용해 도자 작업에 열중해 온 김 작가는 도자기의 기본인 물레성형에 탁월해 한국 도자기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물로, 순수 자연의 빛깔을 머금은 여러 도자기에 그림과 도예를 접목해 온 작가다.

전시에서는 용의 기상을 그려 넣은 운용문 청화백자를 비롯, 백자칠보문 이중 투각호와 모란문 주전자, 청화 매난문 각병, 당초문 접시, 연화문 투각 필통, 이중 투각 연적, 백자 청화 베갯모, 여기에 백자의 담백함을 담아낸 달항아리까지 다수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전통의 소재로 많이 쓰이는 봉황, 용, 호랑이, 사슴, 학 등 십장생의 동물을 비롯해, 고리모양 네 개를 조합해 원형을 만든 전통의 기하학 문양인 칠보문, 연화문, 당초문, 연리문, 여기에 매·난· 국·죽, 석류, 복숭아 포도, 모란, 새, 물고기 등 자연친화적 요소들을 가미한 심미적 요소는 백자의 기품을 더하고 있다.

김흥준 작가 작품-백자 연화당초문 이중 투각호.

이번 전시는 태토의 제조공정에서부터 유약, 가마제작, 소성의 전 과정을 전통방식에 기초해 구워내고, 여기에 기능과 형태 연구를 통해 고전의 미(美)를 담아낸 장인정신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광대학교 도예과와 단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김 작가는 다수의 단체전과 기획 초대전에 참여했으며, 전국원미술대전 대상, 전북미술대전 대상, 전북공예품경진대회 대상, 대한민국 공예품경진대회 장려상 등 많은 수상 이력을 갖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자기협회장, 전북산업디자인 공모전 운영위원장, 한국미술협회 전통분과 이사, 전북전통공예인협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해 왔으며,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 도자 예술에 대한 강의를 펼치고 있다.

김흥준 작가는 "이번 전시는 조상들의 단아하고 간결한 순백의 미, 그리고 도자 예술의 아름다움이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이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으로 다가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열게 됐다"며 "도자 예술에 대한 40여년 열정을 담아낸 전시인 만큼 많은 분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가 신학기를 맞아 박물관-호남기독교박물관 특별전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를 개최한다.

전주대 박물관-호남기독교박물관 특별전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 개최

전주대학교가 신학기를 맞아 박물관-호남기독교박물관 특별전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시작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개막식은 역사문화콘텐츠과와 연계한 대면 수업과 함께 3월 17일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 동안 전주대 박물관은 호남지역에 선교 사명을 갖고 파송된 7인의 선교사들의 생생한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과 자료들을 수집해 왔으며, 이번 특별전에서는 그간 수집해 온 자료를 정리해 조선기독교회약사, 성경사전, 잉골드 선교사의 진료, 축음기, 약탕기 등 50여 점의 유물과 복음, 교육, 의료, 선교사들의 생활 등 5개의 섹션으로 나눠 소개된다.

박현수 실장은 "혼란스러웠던 19세기 말 조선에 기독교를 전파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주기만 하던 선교사들의 삶과, 교육과 의료라는 근대적 문명과 접촉해 변화된 전주의 근대사회를 엿볼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장구한 시간 동안 선교사의 사명으로 헌신적인 삶과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는 호남기독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홈페이지에 온라인 VR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전시 문의는 전화(063-220-3117)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16~31일까지 2022년 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도입,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 주 강사·보조강사 인건비가 증액됐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내 30개 내외 문화예술단체·기관을 대상으로 단체별 1천6백만 원을 균등 지원한다.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아동, 청소년, 가족이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내 30개 내외 문화예술단체·기관을 대상으로 단체별 1천8백만 원을 균등 지원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기획능력과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내 문화시설 6개소(일반문화시설 3개소 이하·의무배치시설 3개소 이상)를 대상으로 시설별 2천7백만 원을 균등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만 3~5세 유아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도내 문화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가능하며,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의 공고문에서 신청 자격과 지원내용을 확인 후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육성사업 공고

전북도·전북문화관광재단, 총 3건 최대 3천만원 지원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 MICE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2022년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 및 육성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농생명, 식품, 수소, 금융 등 전라북도 특화전략분야에서 성장이 유망한 MICE를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의 MICE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MICE 수요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국제회의 육성을 위한 K-컨벤션 선정을 준비하는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신청 대상은 도내 MICE 행사 주최 및 주관기관으로서 농생명, 식품, 탄소 등 지역 특화자원 및 전북 특성을 반영한 소재로 개최되는 신규 및 기존 행사다. 사업은 개최 횟수와 행사 규모에 따라 도입-성장-성숙의 단계별로 총 3건을 선정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특화 마이스 발굴·육성 사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 온 전북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전북의 미래산업과 전략산업 그리고 뿌리산업과 연계한 특화 마이스 행사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현 관광진흥본부장은 "전북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스마트농생명밸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단지가 있음에도 MICE 글로벌화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며, "도내 MICE 기반 강화와 지역 특화 MICE 발굴·육성으로 마이스 도시 전북의 초석을 다질 것이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제25회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일반인 참관단 모집

남원시는 대전의 본격적인 접수를 앞두고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작품 심사 시 참여할 일반인 참관단을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2명으로, 옻칠 목공예 등 공예 및 디자인 관련 전공자 또는 옻칠 목공예품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서는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은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옻칠목공예'와 '갈이분야' 접수를 받아 4월 6일부터 일반인 참관단이 참여하는 심사를 진행, 4월 13일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공고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 선정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관장 이재정)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2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과 '2022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각각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은 청소년 예술감상교육을 확산해 청소년의 자발적 문화예술 소양 및 정서 함양과 또래,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전한 주말 여가문화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예술감상교육 꿈틀꿈틀 '예술감상 마켓'은 뮤지컬, 연극, 오페라, 미술 총 4기수로 구성돼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감상교육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합창과 미술 총 2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실현으로 일상에서 예술활동을 이어가며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및 개인의 자아실현 및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